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여성정책이슈나 다양한 여성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KWDI Brief>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대 여성 10명 중 5명, 남성 10명 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인식, 20대 남성 10명 중 7명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 젠더 이슈의 보편화·대중화 시대 열림

20대 남성 45% 안희정 1심 판결 잘못, 20대 남성 47.6% 낙태죄 폐지 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 인식조사 결과 발표

조사 요약 및 시사점

- 7월과 11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5명, 20대 남성 10명 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20대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 정체성은 보편화·대중화됨.
- 미투운동 지지도는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감소하긴 했으나, 여성은 7월 88.8%, 11월 80.2%로, 10명 중 8명 정도의 고정된 지지층이 있음을 확인함. 남성 역시 7월 56.5%, 11월 43.6%로, 10명 중 5명은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있음.
- 20대 여성 10명 중 8명(79.4%), 20대 남성 중 7명(68.2%)이 우리사회 성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함. 또한 여성 10명 중 7명, 남성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에서 여성 대상 고정관념 및 차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우리사회의 여성혐오를 심각하다고 인식함. 일상생활에서의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 여성혐오 등에 대한 20대 여성들의 민감성은 높았고, 일부 남성들도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었음. 20대 남성 45%는 안희정 전 총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반대하고,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고 있었음. 이는 20대 남성들 중에도 우리사회의 성불평등 문제에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함. 향후 한국사회의 성평등 이슈를 풀어나갈 동력으로서의 20대의 의식과 정책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이 요구됨.

조사개요

7월

모집단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성인 남녀

표본크기 : 1,004(유효표본 기준)

조사지역 : 17개 시/도

층화 : 시/도, 성별, 연령대별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

조사방법 : 무선 RDD, CATI 시스템을 활용한 전화조사

조사기간 : 2018년 7월 5일 - 6일(2일 간)

11월

모집단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성인 남녀

표본크기 : 1,015명(유효표본 기준)

조사지역 : 17개 시/도

층화 : 시/도, 성별, 연령대별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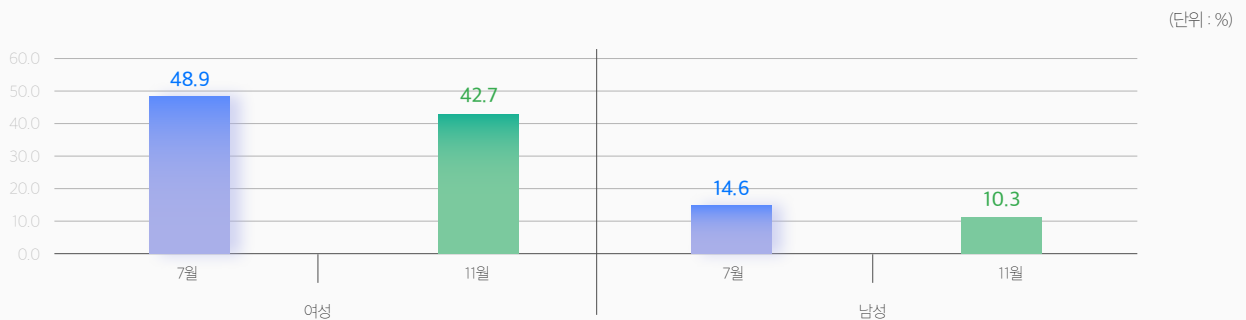
조사방법 : 무선 RDD, CATI 시스템을 활용한 전화조사

조사기간 : 2018년 11월 26일 - 28일(3일 간)

[페미니스트 인식] 20대 여성 10명 중 5명, 남성 10명 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함

○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페미니스트이다'라고 응답한 여성은 7월 48.9%, 11월 42.7%, 남성은 7월 14.6%, 11월 10.3%로 조사됨[그림 1].

- 두 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 볼 때, 11월에 수치가 약간 줄었지만 여성 10명 중 5-4명, 남성 10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응답하였음. 최근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페미니즘 운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정체성으로 확장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상당한 비율로 형성되어 있어 20대의 가치관, 삶의 기획, 정치적 욕구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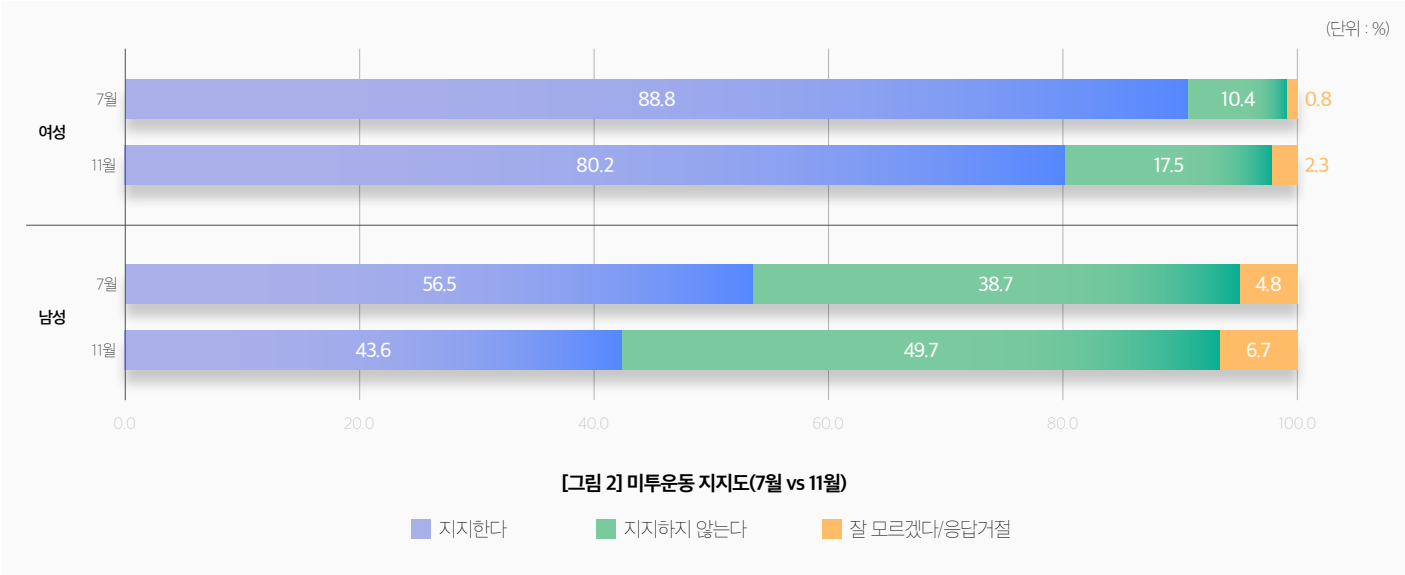


[그림 1] 여성과 남성의 페미니스트 인식(7월 vs 11월)

주: '페미니스트이다' 응답을 기준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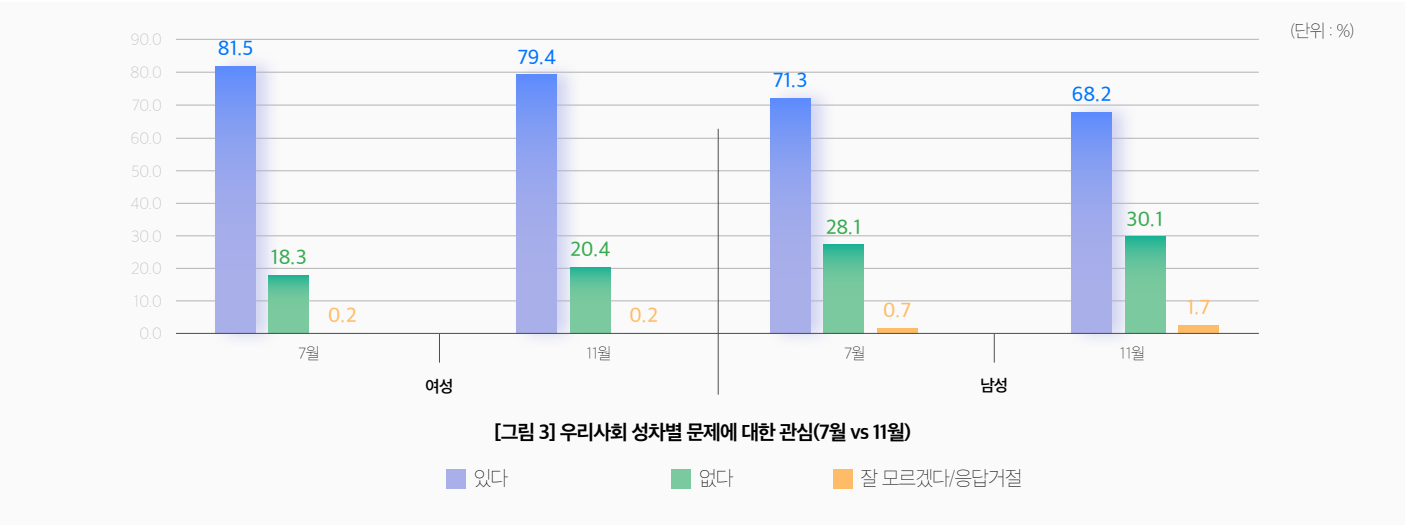
[미투운동 지지] 미투운동 지지도는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하락세를 보이거나 여전히 다수의 지지를 확보함

- 미투운동 지지도는 7월에 비해 11월에 다소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20대 남성 중 5명이 지지하고 있었음.
- 20대 여성은 7월 88.8%, 11월 80.2%로, 20대 남성은 7월 56.5%, 11월 43.6%로 남녀 모두 미투운동 지지도가 하락함[그림 2].
- 20대 여성들은 미투운동을 통해 성희롱, 성차별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남성에 비해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시간의 흐름에도 낮은 하락폭을 보이며 높은 절대 지지도를 보임. 한편 여성에 비해 지지율은 낮고 하락폭은 조금 더 크지만 20대 남성 중 절반가량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확보되어 있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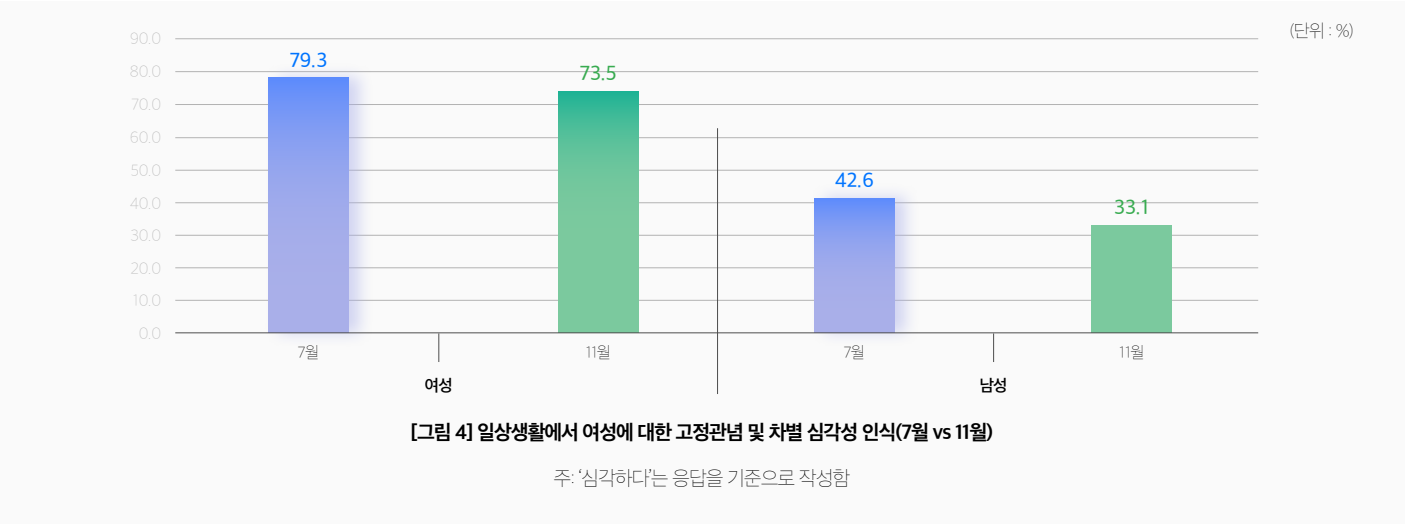


[성차별 문제 관심] 20대 여성 10명 중 8명, 남성 10명 중 7명이 우리사회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여성 10명 중 7명, 남성 10명 중 3명이 일상생활 중 여성 대상 고정관념 및 차별 심각성, 여성혐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 ‘우리사회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여성의 경우 7월 81.5%, 11월 79.4%, 20대 남성의 경우 7월 71.3%에서 11월 68.2%로 조사되었음[그림 3].
-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각각 2.1%p, 3.1%p 하락하였지만 10명 중 7-8명이 우리사회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큰 변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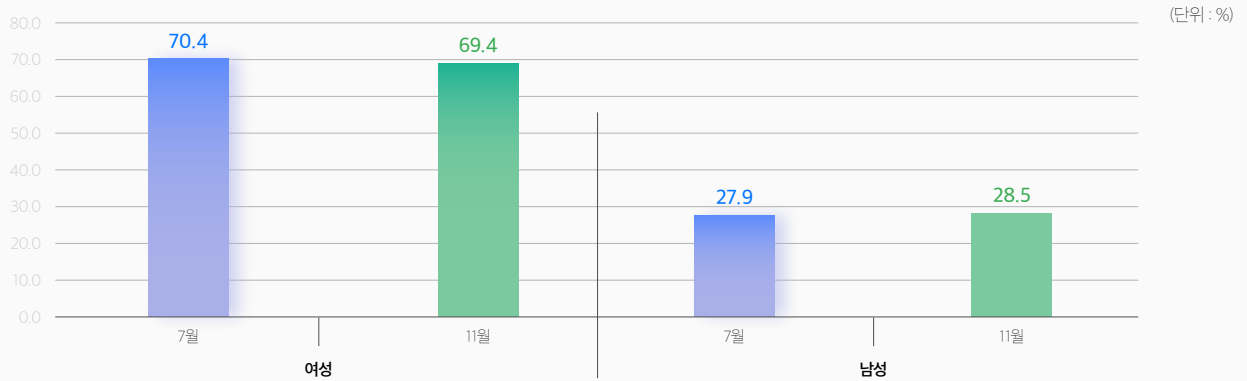


-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심각성을 인식하는 비율(‘심각하다’는 응답 기준)은 20대 여성의 경우 7월 79.3%, 11월 73.5%, 20대 남성의 경우 7월 42.6%, 11월 33.1%로 조사되었음[그림 4].
- 여성은 5.8%p, 남성은 9.5%p 하락 남성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큼.



○ ‘우리사회의 여성혐오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역시 20대 여성 10명 중 7명, 20대 남성 10명 중 3명은 우리사회 여성혐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그림 5].

- 20대 여성은 7월 70.4%에서 11월 69.4%로 1%p 하락하였고, 20대 남성은 7월 27.9%에서 11월 28.5%로 0.6%p 증가하였지만 큰 변화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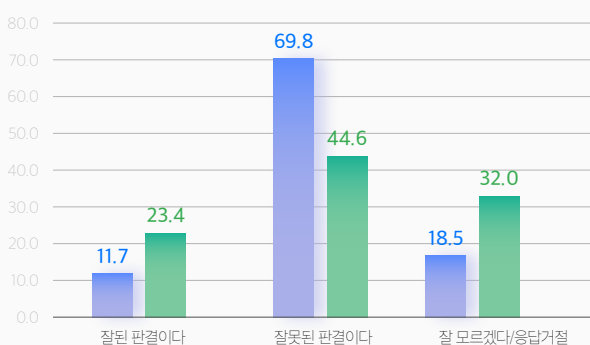
[그림 5] 우리사회 여성혐오 심각성 인식(7월 vs 11월)

주: ‘심각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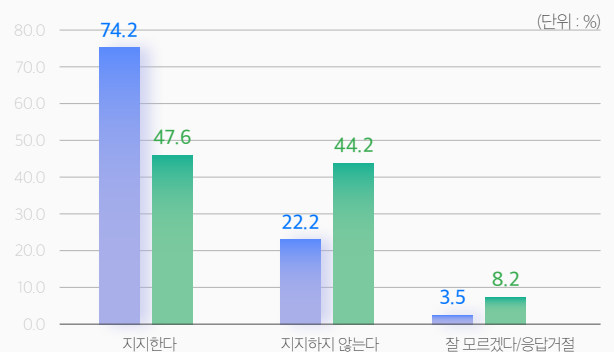
○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고, 대다수의 20대 여성과 30% 정도의 20대 남성은 우리사회의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 여성혐오 등의 심각성에 동의하였음.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공감도나 민감성은 낮았지만, 20대 남성 중에도 성불평등, 성차별 문제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남성들이 상당 비율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이는 남성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존재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20대 남성의 역할을 기대하게 됨.

[2018년 성평등 현안 인식]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반대, 낙태죄 폐지 지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존중 등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 20대 여성 중 69.8%, 20대 남성 중 44.6%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인식함[그림 6]. 또한 낙태죄 폐지에 대해 20대 여성 10명 중 7명, 20대 남성 10명 중 5명이 지지함[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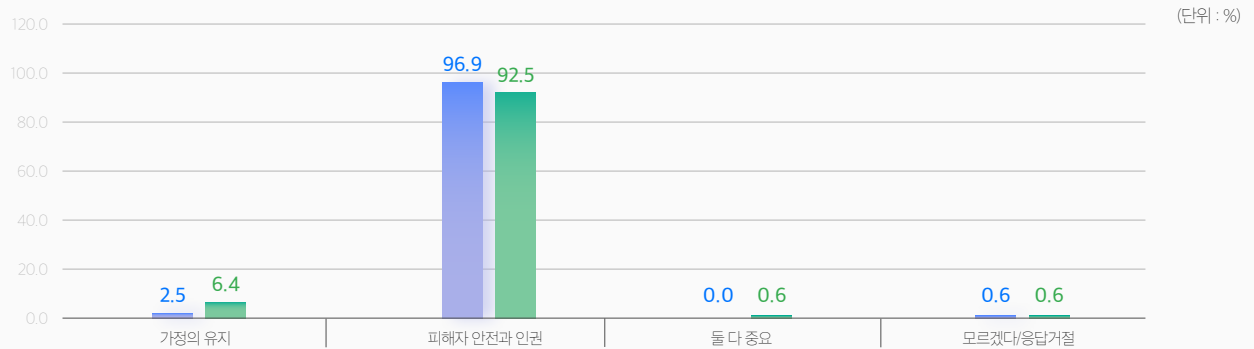
[그림 6]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 평가(성별, 11월)



[그림 7] 낙태죄 폐지 지지도(성별, 11월)

■ 여성 ■ 남성

-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선택한 비율이 90%를 상회함[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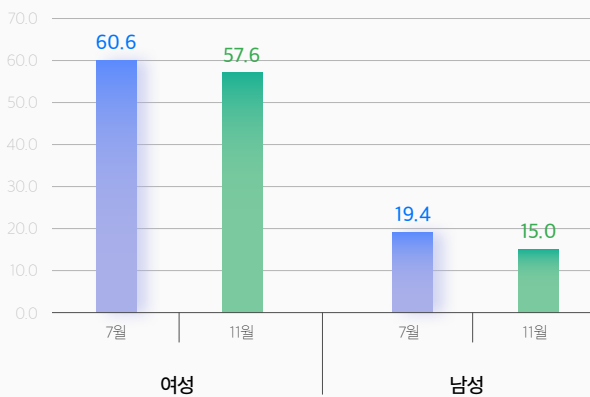


[그림 8]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시 우선순위(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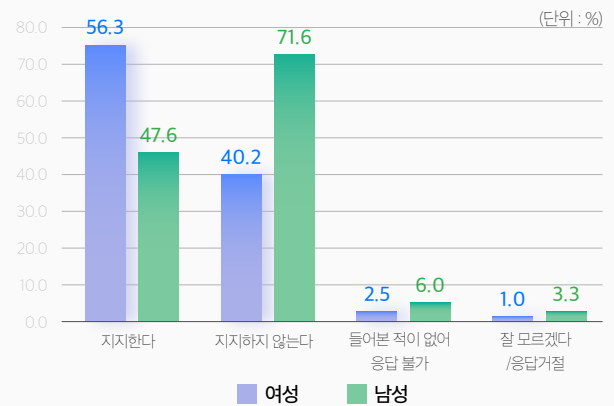
■ 여성 ■ 남성

-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에 대한 규탄 시위(일명 해화시위)에 대해 여성 중 57.6%, 남성 중 15.0%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9]. 또한 여성스러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탈코르셋 운동에 대해 여성 중 56.3%, 남성 중 19.1%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0].

-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에 대한 규탄 시위의 경우, 남녀 모두 7월 대비 11월 약 4%p 정도 감소하여, 시간상의 변화추이보다는 남녀 간의 지지의 갭이 큰 사안으로 분석됨.



[그림 9] 불법촬영 규탄 해화시위 지지도(7월 vs 11월)



[그림 10] 탈코르셋 운동 지지도(성별, 11월)